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미워해야 이기는 생활이 된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가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경지에 올라가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밀실에서 생활하게 했다. 거기서 이 사람은 늘 주님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다면 나를 의식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간 것이다. 나를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고, 세상을 생각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오직 구세주만 의식이 되고 눈을 감든지 뜨든지 늘 구세주만 생각나고 구세주만 보여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대로 이 찬송가 가사와 마찬가지로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도록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자나 깨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식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초초로 하나님만을 사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지 잡념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 잡념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꼭 차 있을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만 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영모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이다. 옛날에 영모님이 마귀한테 씌운 사람을 바라보면 마귀한테 오염이 된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초초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한테 오염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시간 시간이 바라보고, 일 초 일 초 늘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요, 생명의 과일을 먹는 비결이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이긴자가 성경 말씀을 완성한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다. 왜냐하면 이긴자가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실패자가 성경을 쓴고로 이긴자의 완성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절대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대로 죄인이 쓴 말은 죄인의 생각을 그려놓은 것이요, 죄인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책이고로, 죄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지만 온전한 은혜



구세주 조희성님

를 받지 못하고 쓴 글이고로 부족한 글인 것이다. 등잔불을 켜면 촛불을 켜면 방이 더 밝고, 촛불을 켜면 방보다 전깃불을 켜면 더 밝고, 전깃불을 켜면 태양빛이 비치는 방이 더 밝은 이치처럼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햇빛과 같은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등잔 불 밑에 살 때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태양빛 같이 밝은 빛 속에서는 잘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죄요, 잘못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밝은 빛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나와서 죄가 나라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요, 죄의 영이고로 마귀의 영이 주장하고 이끄는 대로 생각을 하면 피가 썩고 죽는다. 이것은 지극히 과학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학자들이 모르고 있다.

피를 썩게 하는 것이 죄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음을 움직이면 피가 썩는다. 피가 썩으면 생명이 썩는 것이요, 죽는 것과 같은 것이고로 그것이 바로 죽음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무슨 생각을 해도 죽을죄다. 오늘날 성경을 안다, 불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죄라는 것은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라는 말 속에도 있고,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 속에도 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내 안에서 행치 말라는 말이고로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만 안 쓰여 있지 그 말이 그 뜻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세밀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다.

인과법칙이 진리다

성경과 불경에는 인과법칙이 쓰여 있다. 차에 갈려서 죽는 사람은 차에 갈려서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는 온전한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람이 영생을 하는 비결, 죽지 않는 비결,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 다.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덮

어 놓고 승리제단에만 나오면 영생 얻는다고 말하면 예수나 석가나 똑같은 멍청구리 짓이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법이요, 마귀를 죽이는 법은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법이고로 내 생각을 여지없이 초초로 지워버리는 생활이 나를 죽이는 생활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구리구리 멍청구리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면 누구든지 이 길을 갈 수 있다. 나를, 내 마음, 내 의식에 의한 마음을 시간 시간 지워버리고, 시간 시간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를 없애버리는 행동이다. 나를 항상 버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만 남는다.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만 남으면 죽으려야 죽을 수 없고, 약한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다. 성질이 나올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고, 싸움을 하려야 싸움을 할 수 없다. 누가 때리면 때리는 사람을 도리어 감사히 생각하고 때리는 사람을 좀 더 사랑했다.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이 말씀을 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신앙촌에서 핍박을 받으며 마귀라고 의면을 당하고 돌팔뚝이를 쳐도 끝까지 이 사람을 미워하고 마귀라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안 받아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다. 나중에는 가래침까지 빨았어도 신사양복에 묻어 있는 가래침을 풀잎을 뜯어서 씻으면서 고개를 푹 숙고리고 지나갔다. 보통사람 같으면 욕을 하

고 화를 낼 텐데 아무소리 안하고 풀잎으로 씻어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가래침 뺏은 그 사람이 나중에 제일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제일 이 사람을 사랑했다. 마귀라는 것은 사랑의 무기로 죽이게 되어 있지 마귀는 악으로 죽이게 되어 있지 않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이기는 생활이다

이 사람은 자신을 미워했다.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했다. 욕을 하고 때리고 할 때 화를 내면 마귀입장에 서는고로 마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내 편에 서지 아니하고 때리는 사람 편에 서서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세게 때리지 그렇게 천천히 때립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다. 그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이기는 생활을 했다. 이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이 길을 가라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대로 살아서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예언서를 많이 알고, 고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귀가 되는 나를 이겨야 영생이요, 나를 이겨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를 못 이겨서는 소용이 없다.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

1991년 12월 5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추상(抽象)적 사고(2)

전 호(號)에서 동양인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이란 이 세계 내에서 '영원한 순환적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관점을 살펴본다.

이와 반대로 서양적 내세관은 '초월적 내세관'으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분리해 보는 이원론적 사유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사후에 영혼이 이 세계를 초월하여 다른 세계로 간다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초월적 내세관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던 것일까?

서양적 사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때 농경과 유목 문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으나, 비옥한 지역을 빼앗기 위한 정쟁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찾아 유랑하는 가계나 씨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목생활은 농경생활과는 달리 항상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정

착된 땅에서 존재의 발판을 삼기가 어렵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난 신기루와 같은 환영 등 사막의 모든 형상은 거칠고 척박해서 마음 불이고 살 만한 곳이 못된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땅은 그들 '존재의 영원한 순환의 터전'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반면 하늘은 어떠한가? 높고 푸른 하늘은 어디를 가도 항상 불변적이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불가사의함과 무한하며 광활한 신성한 영역이다. 땅이 구체적이고 국부적이며 상대성과 다(多)를 상징하는 것과 달리 하늘은 추상적이고 신성하며 절대성과 하나(一)을 상징한다. 자연히 유목생활을 주로 하는 유목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원절대성을 보장해주는 하늘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생각으로 하늘은 땅과는 달리 지고하고 유일하며 영원불변한 영역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목민족의 인식 패턴은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유목민족의 초월성

에 대한 집착은 현실에 대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통과 불행스런 삶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월적 신과 세계' 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상의 의지처(依支處)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신(神)의 숭배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원적으로 분리되고 땅의 현실 세계는 부정된다. 하늘과 땅의 분리는 곧 영혼과 육체의 분리, 내세와 현세의 분리, 신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한다. 하늘은 영원불변하고 유일 절대적이며, 땅은 가변적·임시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생각된다. 하늘과 땅이라는 인식론적 분리가 영혼과 육체, 내세와 현세라는 존재론적 분리를 일으켰다. 우리는 이러한 이원론의 발달의 배경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리할 수 없는 하늘과 땅에 대해 마치 그러한 경계와 세계가 있는 양 분리하여 생각하고, 그 환상적 분리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 내세와 현세가 분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사상과 믿음을 전

제한 육체의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당 초월적 내세를 향한 영혼의 안식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초월적 내세'가 그들이 추상한 불멸성의 통로였던 것이다.

육체가 죽은 다음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상과 믿음의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라 할 것이다.

피의 유전에 의한 내세관

한편 피의 유전에 의한 내세관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관점이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내세관이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 만들어졌다. 누구는 특별히 옆구리를 가르고 나왔다가, 앞에서 부화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지 사실

적 사건은 아니다.

공통적으로 인류는 누구나 다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이어 받은 '피의 계승체'이다. 유전학에서는 인간은 신장, 골격구조 및 머리와 눈의 빛깔과 같은 많은 신체적 특징을 유전받았다고 말한다.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 기질 및 정서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도 유전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부모의 피를 그대로 계승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똑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계승받은 몸이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계승받은 몸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몸속을 흐르는 피는 인간의 최고 조상까지 이어온다.

따라서 우리의 몸속에서 조상들의 피, 즉 조상들의 영과 정신이 계승되

어 활동하고 있다가 된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과 혼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의 삶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의 내세가 천국 간다느니 지옥 간다느니 하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말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무수한 조상의 영이 현재 살고 있는 자손 속에서 내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자손의 전생(前身)이 부모의 생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세와 현세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로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몸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조상이 보고 싶은가? 그러면 조용히 거울 앞으로 가서 거울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거기에 바로 당신 선대(先代) 조상들의 모습이 깃들여 있을 것이다.*

김주호 기자